

두 나가(Nāga)와 빔비사라왕 설화 연구

박청환(정덕)
중앙승가대

I. 들어가는 말

붓다가 인도에 출현했을 당시에 인도는 이미 유구한 역사 속에서 풍부한 정신적 종교적 자양분과 세속의 정치, 경제적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서 두터운 민간신앙전통이 세워져 있었다. 신흥종교였던 불교가 인도사회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불교는 기존의 민간신앙전통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립시킬 필요가 있었다.

불전(佛典)의 다양한 이야기들은 불교교리와 용어뿐 아니라 인도의 역사, 지리, 사회관습과 조직, 경제생활, 불교이외의 다른 인도 종교전통들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함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또한 인도라는 풍토 속에서 뿌리를 내린 불교 역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불전은 단순한 교리에 대한 관점이외에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될 수 있는 모습들이 중층을 이루고 있다.

그러한 모습들의 파악을 통해서 우리는 불교가 어떻게 인도 사회 속에서 뿌리를 내렸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특히 논서와 달리 자따까나 아바다나 등은 폭넓은 수요자 층을 의식해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는 불교적 메시지를 일반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교와 도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그리하여 자따까나 아바다나 등은 문학적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남게 된다.

본고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약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藥事)¹⁾에 들어있는 두 나가(nāga) 또는 용왕과 빔비사라왕 사이의 갈등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²⁾의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불교가 민간전통과의 관계를³⁾ 정립하였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II. 내용분석

1. 두 나가의 유형 분석

1) *Mūlasarvāstivādin Vinaya Bhaiṣajyavastu*.

2) 설화의 성립연대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는 전반적으로는 기원후 4-5세기나 그 이전에 편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개별적인 설화들의 성립은 훨씬 이전일 것이다.

3) 본고는 당대의 민간신앙과 불교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도상적 연구가 문헌적 연구에 첨가되어 시도되는 일반적인 경향을 참고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설화만으로는 역사적 신앙형태의 사실에 접근하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령 Robert DeCaroli의 *Haunting the Buddha: Indian Popular Religion and the Formation of Buddh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같은 연구서는 그러한 예를 잘 보여준다.

먼저 한문본⁴⁾에 의거해서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자.

한 때 왕사성에 산(山, Girika)과 묘(妙, Valmīka)라고 하는 두 용왕이 있었다. 두 용왕의 위덕력으로 비가 적당히 내려 왕사성은 항상 풍요로웠다. 이 때에 세존께서는 난타(難陀, Nanda)와 오파난타(鄔波難陀, Upananda)⁵⁾ 용왕을 조복시키시니 이 두 용왕은 언제나 세존께 공양을 드렸다. 이에 영향을 받아서 산과 묘도 불범승에 귀의했다. 두 용왕은 바다로 옮겨가고자 세존께 청하였으나 허락을 못받았다. 그때 교만한 빔비사라왕이 세존을 보러 왔는데 거사의 모습을 띤 산과 묘가 인사를 얹자 화를 냈다. 왕을 공경해야할지 아니면 법을 공경해야할지를 묻는 두 용왕의 질문에 세존은 두 용왕에게는 왕보다는 법을 따르라 하였고, 법을 보여달라는 빔비사라왕에게는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면 당장에 바른 법을 알 수 있다고 설하셨다. 허나 왕은 두 용왕에게 왕사성을 떠날 것을 요구했고 두 용왕은 바다로 갔다. 두 용왕이 떠나자 왕사성은 가뭄으로 고통 받고 이에 왕은 세존께 원인을 물으러 왔다. 세존이 설명해주자 왕은 어떻게 두 용왕에게 사과할 수 있는지 물었고, 두 용왕의 요구대로 궁전을 지어주고 항상 공양을 올렸다.⁶⁾

4) 이 부분은 범본은 전하지 않고, 티벳본은 Jampa Losang Panglung, *Die Erzählstoffe des Mūlasarvāstivāda-vinaya: Analysiert auf Grund der Tibetischen Übersetzung* (Tokyo: Reiyukai Library, 1981), 20쪽 참조.

5) 난타鄔波難陀-난다(Nanda)와 우파난타(Upananda)의 조복에 관한 자료들은, Kenneth Ch'en, "A study of the Svagata Story in the Divyāvādāna in Its Sanskrit, Pāli, Tibetan and Chinese Versions,"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HJAS) 9 (1946), 278-9쪽의 각주 133번 참조.

6)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藥事』卷4 (『大正藏』24, 17a-18b).

불전에서는 용이나 큰 뱀의 이미지를 가진 나가(nāga)가 자주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나가들은 불교 이야기들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⁷⁾ 다수의 자따까 이야기들이 붓다의 전생인 보살을 향한 나가들의 보시를 기록하고 있고, 어떤 자따까들은 보살로부터 종교적 가르침을 받고 감사해하는 나가들을 보여준다.⁸⁾ 원만장자(圓滿長者)의 이야기인 『뿌르나야마다나(Pūrṇāvadāna)』⁹⁾를 분석한 테이틀만은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두 나가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두 나가인) 크르쉬나(Krṣṇa)와 가우따마까(Gautamaka)는 붓다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구제받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부주의하고 어딘가 지적인 면이 결여되어있다. 매우 힘이 있고, 반신성(半神聖)한 존재란 면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든다……. 붓다에 대한 헌신과 주의력 결핍이 어우러진 이런 유사한 면이 『디브야마다나』에서도 보인다.¹⁰⁾

7) 나가들과 관련된 이미지들이나 상징들 그리고 신화들에 관해서는 Gail Hinich Sutherland, *The Disguises of the Demon: The Development of the Yakṣa in Hinduism and Buddhism*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38-43쪽; Richard Gombrich, *How Buddhism Began: The Conditional Genesis of the Early Teachings* (London: Jordan Lectures 1994, SOAS, 1996), 70쪽, 72-5쪽; Joel Tatelman, *The Glorious Deeds of Pūrṇa: A Translation and Study of the Pūrṇāvadāna* (Delhi: Motilal Banarsidass, 2001), 153-5쪽; Lowell W. Bloss, "The Buddha and the Nāga: A Study in Buddhist Folk Religiosity," *History of Religions* 13 (1973), 36-53쪽 등을 참조.

8) Tatelman, 앞의 책, 153쪽.

9) E. B. Cowell and R. A. Neil, eds., *The Divyāvadāna: A Collection of Early Buddhist Legends* (Divy) (Amsterdam: Oriental Press NV & Philo Press, 1970), 24-54쪽; 한역본은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藥事』卷2-4 (『大正藏』24, 7c-17a).

10) Tatelman, 앞의 책, 153쪽.

이런 언급은 어느 정도 이 이야기속의 나가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기리카(山)와 발미까(妙)는 지적인 면이 결여되기는커녕 매우 이성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붓다에 대한 헌신이란 면에서는 유사한 모습이다.¹¹⁾

나가 승배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두 나가 기리카와 발미까가 물을 통제하고 그럼으로써 풍요를 통제하는 존재로 묘사되는 도입부에서도 보인다:

두 용왕의 위덕력으로 말미암아 항상 5백 군데 맑은 연못이 있었고, 5백 군데 솟아나는 샘이 있었으며, 저수지와 호수에는 물이 일찍 마르는 일이 없었으며, 비가 내리는 것이 때에 맞아서 조화롭고 충분하게 땅을 적서 주어

11) 불교와 나가신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더트는 “아쇼카왕의 보호와 카시미르에서 불교의 인기가 대단했었다는 설명들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불교는 나가 승배를 확립한 기존신앙으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야했던 것도 사실이다. 불교가 출현했을 때, 나가 신앙은 인도에서 매우 보편적이었으므로, 그것이 왜 오래된 나가 승배쪽으로 관심을 돌림이 없이 나가들의 전설과 붓다에 의한 그들의 교화가 불전들 안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 무난하게 언급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고 언급한다. N. Dutt, ed. *Gilgit Manuscripts* (Delhi: Sri Satguru, 1984), 1권, 10쪽.

나가 신앙과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인도종교들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예를 들어, 자이나 이야기인 『아리야난딜라(Āryanandila)』에서, 자이나교도들은 다음과 같이 나가들을 받아들인다: “바이로띠야(Vairoṭyā)는 그녀의 스승이 된 승려에게 모든 나가들을 데려왔다. 승려는 그들에게 자이나 신앙을 가르쳤다. 나가들은 모두 차분해졌고, 마음이 정화되었다. 나가다타(Nāgadatta) 즉 ‘나가들의 선물’이라 불리던 바이로띠야의 아들은 부자가 되었다...그리고 바이로띠야는 나가들의 왕을 명상하면서 죽었다. 그리고 자이나 신앙의 수호자인 다라넨드라(Dharaṇendra) 나가의 부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나면서도 그녀는 바이로띠야라는 이름을 지켰다.”Phyllis Granoff, *The Forest of Thieves and the Magic Garden: An Anthology of Medieval Jain Stories* (Kolkata: Penguin Books, 1998), 232쪽.

서 씨앗의 싹이 잘 트고 풍년이 들지 않는 해가 없었다.¹²⁾

그들은 전통적인 이미지를 따른다.¹³⁾

붓다와 다른 두 나가와의 상하관계정립은 시작 부분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이때에 세존께서는 난타 용왕과 오파난타 용왕을 조복시키시니 이 두 용왕은 언제나 묘고산(수미산)에서 단단한 흙 아래로 내려와 세존께 공양을 드렸다.

그때 산과 묘, 두 용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이 난타와 오파난타의 두 용왕은 언제나 묘고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세존께 공양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이 곳에 있으면서도 어찌 일찍이 따라서 기뻐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것은 좋지 못한 것이니, 우리도 또한 마땅히 세존 계신 곳에서 여러 가지로 공양을 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곧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드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이 두 용왕을 위하여 범답게 가르쳐 보이셨다. 두 용왕은 듣고 나서 곧 불법승에 귀의하고 곧 청정한 계율을 받았다. 이미 계율을 받고 나자 몸과 수용하는 물건이 모두 저절로 불어나고 치성하게 되었다.¹⁴⁾

12)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藥事』卷4 (『大正藏』24, 17a), “由二龍王威德力故 常有五百涿潭 五百涌泉 所有陂湖 未嘗枯潤 雨澤以時 調和充潤 種子苗稼 靡不豐稔.”

13) 이는 “나가들은 특별히 물의 강력한 수호신으로서 그리고 암암리에 대지 아래에 펼쳐진 풍요의 수호신으로 서사문학에서 묘사된다”는 서덜랜드의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Sutherland, 앞의 책, 38쪽.

14)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藥事』卷4 (『大正藏』24, 17a-b), “當爾之時 世尊調伏難陀龍王

당시 농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풍요를 관장하는 나가 내지 용왕이 불교에 귀의함으로써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던 나가신앙에 대한 불교의 우월적 접근이 잘 드러난다.

난다와 우파난다의 귀의는 기리까와 발미까가 붓다에게 귀의를 하기위한 타당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난다와 우파난다가 먼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기리까와 발미까의 에피소드는 후에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기리까와 발미까 이야기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과 난다와 우파난다의 이야기의 서술 구조를 비교해 보자:

〈도표 1〉

기리까와 발미까	난다와 우파난다
1. 난다와 우파난다를 따라서 그들은 붓다에게 귀의를 한다.	1. 두 나가는 붓다에게 도전을 한다. 그러나 목갈라나에게 길들여지고, 붓다에게 귀의를 한다.
2. 그들은 빔비사라를 존경하지 않는다.	2. 그들은 뿌라세나짓을 존경하지 않는다.
3. 빔비사라는 화가 나서 나가들이 그의 나라를 떠날 것을 요구한다.	3. 뿌라세나짓은 화가 나서 나가들을 죽이려고 한다.
4. 나가들이 떠난 후에 그 나라는 가뭄으로 고통받는다.	4. 나가들은 뿌라세나짓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만 붓다가 목갈라나를 시켜서 뿌라세나짓을 구하게 한다.

鰲波難陀龍王 此二龍王 常從妙高山垂下來 供養世尊 爾時山妙二龍王等 作是念已 今此難陀鰲波難陀二龍王 常從妙高山下 供養世尊 我今如何在此 曾不隨喜 此為不善 我等亦應於世尊所 作諸供養 作是念已 即詣佛所 頂禮佛足 退坐一面 世尊為此二龍 如法教示 二龍聞已 歸依佛法僧 便受淨戒 既受戒已 身及受用之物 皆自增盛.”

5. 빔비사라가 붓다에게 이유를 묻는다.	5. 뿌라세나짓이 붓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할 때, 붓다는 그 공양을 목갈라나에게 하라고 말한다. 뿌라세나짓이 그 이유를 묻는다.
6. 붓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어떻게 나가들과 화해할 것인지 알려준다.	6. 붓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어떻게 그가 목갈라나를 시켜서 뿌라세나짓을 구하게 했가를 알려준다.
7. 나가들과 빔비사라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빔비사라는 나가들을 위해 사원을 세우고 공양을 올린다.	7. 뿌라세나짓은 붓다에게 귀의를 하고, 목갈라나에게 감사한다.

두 이야기 사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난다와 우파난다의 이야기에서의 요점은 붓다의 위대함을 능동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붓다는 난다와 우파난다, 그리고 뿌라세나짓을 귀의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그러나 그는 물리적인 간섭은 하지 않는다. 대신에 목갈라나가 붓다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갈등을 풀도록 하는데 역할을 한다. 기리카와 발미카의 이야기에서의 요점은 두 나가와 빔비사라 사이의 갈등의 해소이다. 그래서 붓다는 어떠한 직접적인 관여도 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붓다에게 귀의한 뒤에, 두 나가는 대양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붓다의 허락을 구한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세존께서 계신 곳에서 삼보에 귀의하고 계율을 받아지냈으니 몸과 수용하는 것들이 모두가 저절로 늘어나고 치성하여졌습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들이 큰 바다에 옮겨서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¹⁵⁾

15)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藥事』卷4 (『大正藏』24, 17b), “世尊 我等於世尊所 歸依持戒

『뿌르나아바다나』(*Pūrṇāvadāna*)에서 보이듯이 나가들의 이상적인 거주처는 대양이나 수미산 같은 산이다: “그때 두 나가왕들인 끄르쉬나와 가우따마까는 대양에 살고 있었다.”¹⁶⁾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난다와 우빠난다는 수미산(묘고산)에 거주한다. 그런데 만약에 한 나가가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설화에서는 그의 거주처는 대양이나 수미산같은 장엄스런 곳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곳으로 설정되는 것이 보인다.

『보디짜뜨바아바다나갈빨라따』(*Bodhisattvāvadāna-kalpalatā*)의 티벳어 요약인 빠드마 초펠(Padma Chopel)의 *sTon-pa'i-skyes-rabs-dpag-bsam-'khri-shing* (Story No. 34)에 등장하는 고빠빨라(*Gopapāla*) 나가의 굴복을 받아내는 이야기를 보면, “도시 외곽의 바위산에 머물면서 곡식과 풀에 커다란 해를 입히는 고빠빨라라고 불리는 독뱀이 있다”라는 묘사가 보인다.¹⁷⁾ 대양으로의 이주허가 요청에 대해 붓다는 기리까와 발미까에게 그문제는 왕과 상의하라고 충고한다:

너희들은 항상 국왕과 성읍이 있는 곳에 의지하여 왔으니, 만약 지금 옮겨 가려거든 마땅히 국왕에게 물어본 연후에 떠나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¹⁸⁾

身及受用之物 皆自增盛 願許我等移居大海.”

16) Tatelman, 앞의 책, 76쪽; *tena khalu samayena Kṛṣṇagautamaka nāgarājau mahāsamudre prativasataḥ* -Divy. 50쪽

17) Deborah Black, *Leaves of the Heaven Tree: The Great Compassion of the Buddha* (Berkeley: Dharma Publishing, 1997), 272쪽.

18)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藥事』卷4(『大正藏』24, 17b), “世尊告曰 汝等常依國王城邑之所居止 今若徙去 應問國王 然後可去.”

왕과 나가들 사이의 상호 의존관계에 붓다는 관여하지 않는다. 비록 두 나가가 붓다에게 귀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왕과 나가들 간의 기존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붓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붓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가들은 떠나지 않기로 정하고 낮에는 붓다를 모시기 위하여 재가자들로 변장한다.

그리하여 두 용왕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언제나 이렇게 행하였다. 즉 낮에는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거사의 모습이 되고, 밤에는 변하여 하늘사람의 몸이 되어서는 여러 궁전을 거느리고 몸을 따라서 행하며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공양올렸다.¹⁹⁾

붓다를 보기 위하여 인간의 형상을 한다는 것은 난다와 우빠난다의 이야기 속에서도 일어난다: “그때 두 나가들은 인간형상을 취하였다. 목갈라나는 그들을 붓다에게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들은 붓다의 발에 예를 표하였다.”²⁰⁾ 나가들은 붓다에게 귀의할 때 인간형상을 취하게 된다. 왜냐하면 나가로 태어난다는 것은 악업의 결과이고,²¹⁾

19)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藥事』卷4 (『大正藏』24, 17b), “時二龍王既住不去 常作是行 若於晝時 來世尊所 作居士形 若夜來時 變為天身 將諸宮殿 隨身而行 禮佛供養.”

20) Black, 앞의 책, 174쪽. 증일아함에서는 목갈라나가 난다와 우빠난다에게 그들이 붓다를 뵈기 전에 인간형상을 취하라고 요구한다. 『增壹阿舍經』卷28 (『大正藏』2, 704b), “爾時 世尊與無央數之眾為說法 是時 目連告二龍王曰 汝等當知 今日世尊與無央數之眾而為說法 不可作汝形至世尊所 龍王報曰 如是 目連 是時 龍王還隱龍形 化作人形 不長不短 容貌端正 如桃華色.”

21) 예를 들어 『大唐西域記』를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 『大唐西域記』卷1 (『大正藏』51, 875a), “我以惡業受身為龍”; 『大唐西域記』卷6 (『大正藏』51, 902c), “我惟惡業受此龍身.”

인간이 된다는 것은 나가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대당서역기』의 한 이야기 속에서도, 젊은 나가 처자는 석가족 젊은이를 만나자 말하기를 불행하게도 그녀가 받은 나가의 몸은 그녀의 악업에 따른 천벌이라고 한다.²²⁾ 그러자 석가족 젊은이는 대답하기를 그가 쌓아놓은 복력에 의해 이 나가 여인의 몸이 인간형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²³⁾

나가로부터 인간으로의 이 변환은 갈등동기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두 나가들과 빔비사라 사이의 주요 갈등은 빔비사라가 그들의 인간형상만을 보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로서만 여기고 그를 공경하기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난다와 우파난다의 이야기에서와 같은 구조이고, 잘 알려진 이야기나 요소들에 기반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거나 편집하는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가 보이는 문학적 상상력의 좋은 예이다.

2. 두 나가와 빔비사라왕의 갈등과 화해

이 이야기의 축인 두 나가들과 빔비사라 사이의 갈등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빔비사라의 출현은 『근본설일체유부약사』에서 다음에 나오는 아자타사뚜르의 부분에서 설명되듯이 붓다의 여정 속에서 아들인 아자타사뚜르를 소개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등장부분을 보자:

22) 『大唐西域記』卷3(『大正藏』51, 883c), “況乎積禍受此龍身.”

23) 『大唐西域記』卷3(『大正藏』51, 883c), “凡我所有福德之力 令此龍女舉體成人.”

그때 빔비사라왕은 찰제리 종족으로서 교만하고 아만이 높아서 항상 이렇게 행동하였다. 즉 만약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는 좌우의 모시는 신하들로 하여금 먼저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였으며, 왕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일어서서 공경하게 하였다.²⁴⁾

빔비사라라는 등장인물은 이 부분에서 보이듯이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이는 그의 실제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다른 경전들 안에서 빔비사라는 붓다에게 올린 첫 공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37년의 기간 동안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신흥종교를 돕는 인물로 그려진다.²⁵⁾ 이 이야기의 서두에서 빔비사라는 붓다를 존경하지 않는다. 이런 빔비사라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한 묘사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는 이야기 속에서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최상의 지혜를 갖춘 스승으로서의 붓다와 세속왕의 무지와 편견을 대조시켜서 보이기 위해서이다. 더욱이 이런 류의 왕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는 다음의 인용을 고려해 볼 때 극적 갈등을 불러온다:

고대 인도에서의 왕은 특히 민속전통의 시각에서는 생존의 질서유지자(orderer of existence)였다. 만약에 왕이 자신의 삶과 당연히 그의 지도를 따르는 백성들의 삶을 바르게 질서 있게 유지한다면, 신들은 그의 재물을

24)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藥事』卷4 (『大正藏』24, 17b), “爾時頻毘娑羅王 以利利種 貢高我慢 常作是行 若欲詣佛所 便令左右侍臣 先往佛所 告令諸人 若見王來 起立恭敬。”

25) G. P. Malalasekera, *Dictionary of Pāli Proper Names* (DPPN) (London: PTS, 1974), 2권, 285-6쪽.

지키면서 그의 권력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적당한 양의 비를 지배자의 영토에 바치는 것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믿어졌다.²⁶⁾

즉 당시 왕이란 다르마 수호자인데 재가자로 변신한 두 나가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빔비사라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거부하자 빔비사라는 격노한다. 빔비사라는 그들의 무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왕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나가들은 어찌해야 할 것인지를 붓다에게 묻는다. 붓다는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왕보다는 다르마를 따르라고 한다.²⁷⁾ 세속왕 보다는 불법이 높다는 것을 전하는 부분이다.

비록 갈등이 두 나가들과 빔비사라 사이에서 이지만 그들의 갈등의 원인이 붓다를 둘러싸고 일어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중생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두 ‘생존의 질서유지자들’은 붓다 밑에서는 동등한 것으로 여겨진다. 위에서 블로스의 언급에서 보듯이, 붓다는 이런 나가들과 왕들의 전통적인 관계에 개입은 하면서도 한쪽을 편들이 없이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이 명백해진다.

빔비사라에게 행한 운문형식의 붓다의 설법²⁸⁾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불교경전들은 붓다가 빔비사라에게 행한 어떤 설법이나 빔비사라가 붓다에게 행한 어떤 질문에 대한 언급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

26) Bloss, 앞의 논문, 38-9쪽.

27)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藥事』卷4 (『大正藏』24, 17b-c), “過去諸如來 及於未來者 現在諸佛等 能除多煩惱 現行虛空中 當行虛空者 彼諸正等覺 咸皆恭敬法 諸欲利益者 及樂盛德人 應悉生尊重 常念於佛教.”

28)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藥事』卷4 (『大正藏』24, 17c), “嗔恨無清淨 忿怒或在心 諸佛所說法 不能得了知 斷諸嗔恨心 除去不淨願 若無毒害者 卽堪知正法.”

문이다.”²⁹⁾ 즉 붓다와 빔비사라는 경전에서 법을 청해 주고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한 예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붓다의 이 설법은 내러티브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이 이야기 속의 빔비사라는 허구적인 이미지의 한 예일 뿐이다. 이는 붓다의 설법 전후로 보이는 빔비사라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이때에 그 두 용왕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곧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빔비사라왕은 곧 성을 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어 부처님께 아뢰었다.

“원하옵건대 바른 법을 보여 주소서.”³⁰⁾

그때 빔비사라왕은 부처님의 계송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 두 거사 때문에 세존께서 나를 위하여 법을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갔다.³¹⁾

붓다의 설법에 대한 이런 태도는 다른 불전에서 보이는 붓다와 빔비사라의 관계에서 볼 때 상상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는 등장인물들과 붓다간의 설법을 내러티브 목적으로 중

29) DPPN, 2권, 297쪽.

30)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藥事』卷4 (『大正藏』24, 17c), “時彼二龍聞此言已 便坐不起 時頻毘婆羅即生嗔恨 白佛言 願示正法.”

31)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藥事』卷4 (『大正藏』24, 17c), “爾時頻毘婆羅王聞佛頌已 而作是念 緣此二居士故 世尊不為我說法 作是念已 禮佛而還.”

중 사용한다. 붓다의 이 설법은 특히 근본설일체유부에 의하여 고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빔비사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나가들에게 그의 나라를 떠날 것을 요구한다. 역설적으로 대양으로 옮겨가고자 했던 두 나가들의 열망은 빔비사라의 분노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난다와 우파난다의 이야기 속에서도, 뿌라세나짓은 나가들의 그에 대한 정의표시 거부에 분노하고, 이에 나가들도 또한 분노해서 그들은 서로 해하려고 한다. 이 단계에서 붓다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기리까와 발미까의 이야기 속에서 붓다는 그들에게 설법을 하는데, 이 장면은 붓다의 위대함을 보이는데 뿐 아니라 빔비사라의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를 비추는 데에도 일조한다.

두 나가들이 떠나자, 라자그리하에 사는 재가사람들은 물론 비구들도 가뭄으로 인한 기아로 고통 받는다:

용왕이 바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왕사성에 있는 5백 개의 맑은 연못과 물이 솟아나던 샘과 방죽과 호수와 저수지와 높이 점차로 고갈되고 내리는 비도 시절과 맞지 아니하여 온갖 곡식들이 자라는 것이 모두 풍성하지 못하게 되니, 나날이 굶주림을 당하였고 모든 필추들이 결식을 하는 것도 어려워졌다.³²⁾

왜냐하면 나가들은 물의 수호신들이기 때문이다.³³⁾

32)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藥事』卷4 (『大正藏』24, 17c), “後於異時 為龍王入海 王舍城中五百渌潭 流泉涌出 陂湖池沼 漸見枯涸 所降雲雨 不依時節 百穀苗稼 皆不豐盛 日見饑饉 諸苾芻等乞食難得。”

33) “나가는 자연의 힘들, 그리하여 농사짓는 이들의 생존여부를 완전히 결정짓는 비의 힘

그때 빔비사라는 두 나가의 행방에 의문을 품고 붓다를 보러 가고, 붓다는 그가 두 나가에게 행한 일을 그에게 설명한다. 붓다만이 일의 전말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빔비사라는 그가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만약에 사과한다면 그가 그 자신의 이마로 나가들의 발에 경의를 표시해야 하는가를 붓다에게 묻는다:

“그 두 용왕이 매월 8일에는 거사의 모습이 되어 항상 나에게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게 되면 내가 마땅히 모습을 드러내어 대왕이 두 용왕을 알아보게 할 터이니 당신이 마땅히 뉘우쳐서 사과를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올려야 합니까? 예배올리지 말아야 합니까?”

“다만 손을 끌어당기고 말하기를, ‘용왕께서는 노여움을 참아주십시오’라고 하면 됩니다.”³⁴⁾

빔비사라는 나가들에게 말로 사과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붓다로부터 듣는다. 왜냐하면 다른 이의 발에 경의를 표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자신의 존경심을 표현함과 더불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의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를 받아들인다는 표시인데 왕과

을 특히나 소유하고 있는 민간 신성(神性)으로 가장 정확하게 묘사된다”(Bloss, 앞의 논문, 37쪽).

34)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藥事』卷4(『大正藏』24, 17c), “佛言 彼二龍王 每於月八日 作居士形 常來禮我 彼若來時 我當現相 令汝自識 汝當悔謝 王曰 我為頂禮 彼足 為不禮耶 佛言 但唯引手 唱言 龍王當忍.”

나가 사이는 대등한 상호협력관계가 되어야 하므로 붓다는 이를 알려주는 것이다.

상호의존관계인 두 나가와 빘비사라는 평등함 속에서 갈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둘 사이의 관계에 변화를 주는 것은 불교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동시에 여기서 다시금 불교는 종종 감성적이고 비이성적이어서 갈등을 빚는 재래신앙과 세속권력에 대하여 이성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준다. 빘비사라와 두 나가들은 빘비사라가 두 개의 사당을 건립하고 육 개월마다 공양을 바친다는 조건하에서 화해한다.

이 이야기 속에서 빘비사라와 두 나가들 사이의 갈등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나가들은 물과 풍요의 수호신들이나 왕으로부터 공양을 필요로 하고, 빘비사라는 최고의 세속 권력을 대표하나 풍년은 나가들에게 의지해야 하므로, 양자는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빘비사라는 자신의 권위를 위해 나가들을 찾는 것으로 상정된다.³⁵⁾ 그러나 실제로는 그는 고대 인도 전통에 반하여 행동한다.³⁶⁾ 그리하여 빘비사라는 나가들의 존경을 받으려는 그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고통

35) 예를 들어, 왕과 나가 사이의 강한 유대는 『잠빼야 자따까』(*Campeyya Jātaka*) 에도 보인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전투에 진 왕은 나가왕(*nāgarāja*)에 의해 구출된다. 후에 나가 왕은 그를 다시 통치자로 만들고, 왕은 해마다 큰 비용을 들여 나가에게 공물을 바친다(*Jātaka*, iv. No.520). “이 이야기는 나가의 힘을 통해 왕이 권위를 장악하는 것을 보여준다”(Bloss, 앞의 논문, 40쪽).

36) “참된 왕은 신들로부터 그의 권위를 하사받는다. 이것은 고대 인도에서는 짜이 띠야(*caitya*)가 왕의 대관식 장소였다는 사실에 의해 민간 전통에서 가장 극적으로 보여진다”(Bloss, 앞의 논문, 39쪽). 고대 인도에서의 왕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Jeannine Auboyer, *Le trône et son symbolisme dans l’Inde ancienn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49)를 참조할 것.

을 받는다. 자연재해들은 왕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것이 담마빠다의 주석서인 『담마빠다아따까따』(*Dhammapada-aṭṭhakathā: Dhp-a*)에서는 그 이후에 바이살리에서 재앙적인 전염병이 돌 때에 사람들이 왕의 과거업을 조사한 이유이다.³⁷⁾

어떤 이야기들은 자연 또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절대적으로 통치자의 정의에 의존한다고 상술한다. Bloss는 지적하기를 어떤 자따까 이야기들 속에서는 단언하기를 우유통을 밭로 차는 것, 밭에 든 가지 그리고 야생 과일들의 맛은 모두 왕 자신의 행위와 관계되어 있다고 한다.³⁸⁾

III. 구조분석과 의미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요소는 당시에 신흥종교였던 불교가 민간전통과 어떻게 관계를 정립하는지를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현악기는 현이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지 않아야 최상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비유를 드는 모습에서 보이듯이 통상 불전에서 붓다는 이성적인 균형감을 갖추어 종종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37) *Vesālivāsino sabbappaveṇiṃ vicinantā rañño kiñci dosaṃ adisvā ‘mahārāja natthi dosa’ ti vatvā* (*Dhp-a*, iii, 437쪽); E. W. Burlingame, *Buddhist Legends: Translated from the Original Pali Text of the Dhammapada Commentary* (Oxford: PTS, 1990), iii, 168-169쪽.

38) Bloss, 앞의 논문, 39쪽. 이와 관련된 자따까들에 관해서는 *Rājovāda-Jātaka* (No. 334), *Gaṇḍatindu-Jātaka* (No. 520) 참조.

모습을 보이는 다른 신들과 왕권에 대해 우월적인 모습이 잘 대비되어 드러난다.

그리고 오래된 신성(神性)들과 왕권은 붓다의 이러한 우월함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존재하게 된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가들과 빔비사라는 붓다의 가르침을 요구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곤경에 처한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의 아바다나들 속의 등장인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붓다 없이 재구성될 수 있다:

기리까와 발미까라고 불리는 두 나가들이 있었다. 그들의 위덕력으로 말미암아 풍요한 수확이 없던 때가 없었다. 그 때, 빔비사라왕은 두 나가들이 그를 존경하기를 바랐다. 그들이 거부하자 왕은 그들에게 떠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이 떠나자 라자그리히는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 받았다. 그 때, 빔비사라는 가뭄의 원인을 알기를 원했고 그가 나가들을 떠나게 했음을 알았다. 그는 후회했고, 나가들이 돌아와주기를 요청했다. 나가들은 왕에게 그들을 위한 사당을 세워주기를 요청했다. 왕이 사당을 세우자, 나가들은 그들의 친족과 함께 그곳에 머물면서 왕의 공양을 받았다.

불교 내러티브로 이 이야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근본설일체유부는 이야기 전개 도중 거의 매 단계에서 개입을 한다:

빔비사라와 나가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 다시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붓다는 민간신앙과 세속의 최고 세력자들인 나가들과 빔비사라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우주 질서의 최고 수호자로 행동한다.

이것은 불교가 인도의 세속 내지 민간신앙 안에서 어떻게 자리잡기를 바랬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³⁹⁾

<도표 2>

기본 이야기	붓다의 개입
기리까와 발미까라고 불리는 두 나가들이 있었다. 그들의 위덕력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수확이 없던 적이 없었다.	그때 세존은 난다와 우파난다 두 나가들을 다스렸다. 그들은 수미산에서 내려와 세존께 공양을 올렸다. 그들을 보면서 기리까와 발미까는 붓다에게 귀의했다.
그때 빔비사라는 두 나가들이 그를 존경하기를 바랬다. 그들이 거부하자 빔비사라는 그들에게 떠날 것을 요구했다.	붓다의 가르침 덕분에 나가들은 빔비사라가 아닌 법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반면에 빔비사라는 그를 위한 붓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 떠나자 라자그리하는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받았다. 그러자 빔비사라는 원인을 알기를 원했고 그가 나가들을 떠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붓다는 빔비사라가 나가들에게 무엇을 저질렀는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빔비사라는 후회했고 나가들에게 돌아와 줄 것을 요청했다.	붓다는 빔비사라에게 그가 나가들의 용서를 구하라고 충고했고 그들 사이의 만남을 주선했다.
나가들은 왕에게 그들을 위해 사당을 세워 줄 것을 요청했다. 왕이 사당을 세우자 나가들은 그곳에 친족들과 함께 머물면서 왕의 공양을 받았다.	

39) 이에 관해서는 Bloss, 앞의 논문, 36-53쪽 참조.

IV. 맺는 말

신흥종교였던 불교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어떻게 기존의 민간 신앙전통과 세속적 권력인 왕권으로부터 과도한 저항없이 우월적인 관계를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설화는 불교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였다. 그리하여 불교도들은 기존의 인도설화를 바탕으로 불교적인 색채를 입힌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 냈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붓다는 당시 인도사회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민간신앙과 세속적 왕권 위에 절대적으로 위치하여 다르마에 기초해서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는 존재로 묘사됨으로써 다른 종교나 왕권으로부터의 반발을 줄이면서 당시 인도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불전에 들어있는 다양한 설화들은 불교가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인 도전에 직면하여 인도사회의 주류로 편입되기 위한 지난한 응전의 생산물들이란 사실이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두 나가와 빔비사라왕> 설화 속에 드러난 인도의 민간 전통 속에서의 불교의 위상정립을 기술하였는데, 이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좀 더 풍부하고 다양한 나가설화들의 분석을 함께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에 포함된 이 설화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가설화들의 분석은 본 논문의 분석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는 우리에게 나가설화에 대한 좀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붓다의 역할은 어떤 때는 독립적이기 보다는 매우 적극적이며, 불교의 지역적 위상도 토착신앙과 대등한 관계로 그려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빔비사라와 두 나가 사이의 갈등 에피소드에 대한 본 연구는 근본설일체유부가 세속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로서 왕과 나가가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도의 민간전통에 기반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불교적으로 재구성 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주제어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Mūlasarvāstivādin Vinaya*), 나가 (naga),
빔비사라 (Bimbisara), 민간전통 (folk tradition), 왕권 (kingship),
내러티브 (narrative).

A Study on the Buddhist Folktale, “Two Nāgas and King Bimbisāra”

Park, Cheonghwan (Ven. Chongdok)
Joong-Ang Sangha University

In Indian folk tradition, nāgas serve as fierce guardians of the waters and of the abundance that lies beneath the earth. Besides, nāgas play a positive role in Buddhist accounts. A number of jātaka stories record the nāgas' generosity toward the Bodhisattva while others show their gratitude for receiving religious instruction.

This story of Bimbisāra and the two nāgas is a good example of how the *Mūlasarvāstivādin Vinaya* re-organizes the story based on the Indian folk tradition in which both king and nāga take important roles.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Buddhism and nāga beliefs, establishing a relation to nāga belief was the primary concern of Indian religions. In spite of all the patronage of Aśoka and the

glorious accounts of the popularity of Buddhism in Kashmir, the fact remains that Buddhism had to face a strong opposition in the country from the established belief in nāga-worship. Nāga beliefs were quite common in India when Buddhism made its appearance and that is the reason why the legend of nāgas and their conversion by the Buddha occur occasionally in the Buddhist texts.

Bimbisāra's character is described negatively in this story, in contrast with other texts, where from his first dāna to the Buddha until the time of his death, a period of thirty-seven years, he does all in his power to help the new religion. In the beginning of the story, Bimbisra does not respect the Buddha. The negative description of Bimbisāra is designed to produce conflict in the story. Furthermore, this negative description of the king maximizes the dramatic conflict,

Although the conflict is between the two nāgas and Bimbisāra, it is noteworthy that the reason for their conflict is the Buddha. The two 'orderers of existence' are presumed to be equal under the Buddha. It becomes clear that the Buddha intervenes in this traditional relationship, yet he still keeps his sense of distance.

In this story, the conflict between Bimbisāra and the two nāga kings is noteworthy because as nāgas are guardians of water and of abundance, and Bimbisāra represents the highest worldly power both parties are dependent upon each other.

Another interesting point in this story is that it shows how

Buddhism as a new religious movement, established its relation to the folk tradition. The Buddha asserts his superiority over other gods and kingship and while the older deities and kingship continue to function under the Buddha's superiority both the nāgas and Bimbisāra ask for the Buddha's teaching,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in trouble.

To adapt the story as a Buddhist narrative, the Mūlasarvāstivādins intervene at almost every stage of the story. Without directly intervening between them, in other words, and so retaining the sense of withdrawal, the Buddha behaves as a supreme guarantor of the cosmic order by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the nāgas and Bimbisāra. This clearly shows how Buddhism wants to be accepted in the Indian folk tradition.

